



루스벨트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박물관 전경. 네덜란드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에는 우표와 그림 등 다양한 컬렉션이 전시돼 있다.



뉴욕주 하이드파크 저택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부인 엘레나 여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방문객들이 동상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하이드파크=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미국 대통령기념관에서 배운다

‘김대중 기념관’ 글로벌 명소로

〈9〉 프랭클린 루스벨트 도서관·박물관

경제공황·세계대전 극복의 지혜 미래위한 교과서로

하이드파크= 박진현 문화예술 선임기자

“대통령의 개인적 자료와 통치사료는 국가의 중요한 유산이므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프랭클린 D. 루스벨트)

1939년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1882-1945)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대통령 도서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취임하자마자 불어닥친 대공황으로 큰 시련을 겪었던 그는 뉴딜정책으로 비랑끝에 내몰린 미국인들을 구했다. 재선에 성공한 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져 미국은 또 다시 격동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이 같은 내우외환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그는 “전임 대통령들은 어려운 시기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하지만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 줄 ‘과거 자료’들을 찾기가 힘들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역대 대통령들의 통치사료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마치 ‘전쟁을 치르듯’ 국정을 이끌었던 그는 자신이 겪은 ‘경험’들을 먼 훗날 ‘백악관의 새 주인’과 국민에게 전달할 의무감을 느꼈다. 그러기 위해선 이들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이 필요했다.

미국의 대통령 도서관은 루스벨트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그는 개인 유품과 국정운영문서, 60에이커(7만 3450평)에 달하는 개인소유지를 연방정부에 기증했다. 루스벨트의 ‘통근 기부’에 감동받은 지인들은 비영리단체를 만들고 기금을 모아 도서관을 짓는데 보탬이 됐다. 미 의회는 그의 정신을 기리는 뜻에서 1955년 ‘대통령 도서관법’을 통과시켰고 1978년엔 ‘대통령 기록법’을 제정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통령 도서관은 대개 건물은 퇴임한 대통령이 후원자들로부터 모금을 받아 짓고, 사료는 정부기관인 ‘내셔널 아카이브(NARA·국립문서 및 기록보관소)’가 맡는 방식이다.

1941년 6월30일 뉴욕주 하이드 파크에 프랭클린 도서관·박물관(The Franklin D.Roosevelt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프랭클린 도서관)이 역사적인 개관을 했다. 미국의 13개 대통령 도서관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졌다. 워싱턴 D.C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기념관(Memorial·본보 5월26일자)이 그의 뉴딜정책과 업적을 조각공원으로 형상화했다면 이곳은 인간적인 면모와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교육센터다. 도서관은 생가와 박물관, 자료보관소, 루스벨트& 엘레나 인스

1700만 페이지 문서·5만여 서적 등 자료 방대

인간적인 면모와 리더십 배우는 ‘교훈의 場’

티튜트, 묘지 등으로 구성된 국립 루스벨트 사적지(National Historic Site)의 ‘얼굴’이다.

루스벨트 도서관은 미국 최초의 대통령 도서관답게 모든 면에서 우월한 지위를 자랑한다. 우선 400여 종 1700만 페이지에 달하는 각종자료와 문서, 5만 1000권의 서적과 2만여점의 개인컬렉션, 15만장의 흑백사진과 영상자료는 웅대한 국립도서관 수준이다. 도서관 홈페이지(www.fdrlibrary.marist.edu)는 매년 각종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하려는 학자들과 교사, 학생 등 100만 명이 접속한다. 워싱턴 D.C나 보스턴, 뉴욕처럼 접근성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매년 70만 명이 이 ‘외진 곳’을 방문하는 이유다.

방문객들은 가장 먼저 종합안내소 1층에 마련된 영상실에 들러 루스벨트와 부인 엘레나 여사의 일대기

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관람한다. 약 1시간 가량 진행되는 가이드 투어는 생가와 박물관, 도서관, 묘지 순으로 짜여져 있다. 네덜란드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생가는 2층 건물로, 1층에는 거실과 응접실, 2층에는 침실과 집무실, 엘레나 여사의 방 등이 들어서 있다.

무엇보다 방문객들은 집안 곳곳에 전시돼 있는 컬렉션에 눈이 휘둥그레 해진다. 루스벨트는 평생동안 우표, 동전, 회귀서적, 곤충·새 표본, 배 모형 등을 모을 만큼 유명한 ‘수집광’이었다. 해군 차관으로 근무했던 탓인지 바다 그림만 2000여 점이나 된다. 또한 300여 점의 새 표본, 200여점의 배 모형, 120만개의 우표, 그리고 수천개의 동전, 지폐, 기념메달 등 스케일이 남다르다. 2층 남쪽 끝에는 그가 태어났던 방이 그대로 재연돼 있어 눈길을 끈다. 침대 머리 위에는 “오늘 아

내 사라가 4.5kg의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다...”라고 쓴 루스벨트의 아버지(제임스)의 일기가 펼쳐져 애뜻한 부정을 느끼게 한다. 책장에는 그가 세상 때 처음으로 엄마에게 선물받았던 ‘유치원의 아이들’ 등 유년시절의 책들이 꽂혀져 있다.

루스벨트에게 하이드파크 저택은 ‘지상에서 가장 편안한 집무실’이기도 했다. 대통령 재임기간에만 무려 200번 이상 다녀갔다. 특히 여름철에는 국내의 유명인사들과 정치인들을 이곳으로 초청해 ‘여름백악관’(Summer White House)로 불렀다. 그가 마지막으로 하이드파크를 찾은 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기 2주 전인 1945년 4월 마지막 주였다. 그의 유언대로 유해는 생가 옆 해변이 잘 드는 로즈가든에 안장됐다. 여기에는 부인 엘레나 루스벨트와 생전 애정을 쏟았던 스킵틀랜드산 테리어개인 팔라와 독일 셰퍼드 치에프가 함께 잠들어 있다.

도서관의 새년 버틀러는 “이곳은 일반적인 도서관이라고 보다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불굴의 정신과 업적을 교육하고 계승하는 ‘민주주의의 교실’(classroom of Democracy)”이라면서 “매년 미 전역의 4000개의 연구기관, 대학 등과 연계해 진보싱크탱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jhpark@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차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454-7722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